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제2613호

발의년월일 : 2021년 5월 12일
발 의 자 : 서병완, 정순희, 심광식, 윤인숙, 박종호, 최재란, 임정옥, 신상균,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임준희, 이인락, 오진환, 이재식, 공기환, 조진호, 나상희 의원 (18명)

1. 주 문

별첨 “결의안”과 같음(결의안 첨부)

2. 제안이유

가. 미얀마 군부는 작년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지난 2월 쿠데타를 감행하였고, 1년간의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를 구금함.

나. 미얀마 군부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을 학살하고 납치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행위를 자행함.

다. 대한민국 국민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등 군사정권과 맞서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유사 경험이 있어 강한 연대의식을 느끼고 있음. 또한 대한민국 정부 또한 미얀마의 헌정질서가 회복되기를 촉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사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음.

라. 이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규탄하며, 유혈사태의 즉각적인 중단, 구금된 정치인사 석방, 민주정부로의 원상 복귀를 촉구함.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과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함.

3. 결의안 : 붙임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장관,
주대한민국미얀마대사관 대사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의 부정선거의혹을 이유로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감행하였다. 또한, 기존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으로 모자라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미얀마 민주화 상징인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를 구금하였다.

군부 쿠데타 이후 더욱 거세지는 유혈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을 학살하고 납치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미얀마에서 전해지는 비극적 소식을 접하며, 강한 연대의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우리 국민은 1960년 「2.28 민주운동」을 시작으로 「4.19 혁명」과 1980년 「5.18 민주화 운동」까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군사정권과 맞서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유사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 또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과 국가안보 실장 주재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제출 등을 통해 미얀마의 헌정질서가 회복되기를 촉구했다. 이는 우리 국민이 느끼고 있는 마음을 대변한 것이다.

여전히 미얀마의 사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얀마 군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위나 생명을 도외시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자행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는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된 민주주의 부정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거로 규정하고, 미얀마 군부의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는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 등을 조속히 석방하고, 민주정부로의 원상 복귀를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한 미얀마 국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한다.

2021.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